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印刷人 方又榮
主幹 宋赫
編輯部長 李政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2
本社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如備邊城,
中外牢固,
自守其心,
非法不生.
行缺致憂,
令臨地獄.

변방의 성을 지키듯 안팎을 함께 굳건히 지키듯, 스스로 그 마음지키어 악한 마음을 생기게 하지 말라. 마음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근심이 엿보아 괴로우리라.

<法句經>

民族私學의 횃불드어 72돌

慈悲와 智慧로 東國中興 다져

「큰 光明 큰 智慧 큰 힘으로
누리의 어둠을 밝히느니 우러보라 眞理의 동산, 學問의 聖火높이 들렸다」

여기 人類와 겨레를 위한 英才들의 殿堂인 남산기슭, 東國大學校ㅣ 찬란한 眞理의 횃불을높이 들어 어언 72個 星霜의 年輪을 헤아린다。거룩한 부처님의 慈悲와 智慧로 새時代의 炬火가솟고있다。

일찌기 구한말, 이땅에 비운의 물결이 소용돌이 칠때 한국불교계의 先覺者들은 대학사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이룩하였으니 명진학교가 바로 그것。1906年 5월8일, 어두운 시대의 겨레를 지탱할 새동량을 기르기위해 교육救國의 백년대계를 세웠다。일제의 탄압속에서도 겨레의 곧은 긴 숨결을 이어 中央學林으로 발전。그러나 3·1독립운동이래항일의 요람이된 본교는 강제폐교의 아픔을 거듭 겪으면서 中央佛敎專門·東化專門ㅣ드디어 광복후에는 동국대학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나라 민족사학의 선구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慶州 石窟庵에 彫刻된 것과 같은 永遠을 사는 사람의 모양들이 講堂마다 學生들 틈에 그윽히 끼어 同行한다。

世界의 마지막 나라 大韓民國의 맨 마지막 靜寂과 義務 속에 자리하여 가장 밝은 눈을 뜨고있는 民族이。三千 가운데서도 가장 쓰고 짜고 거운 한 복판。

永遠 속의 가장 후미진 書齋 最後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사는、最後로 責任질 것을 責任지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母校여
우리 故鄕 중의 故鄕이여。

○ ○

東國이 낳은 민족의시인인 徐廷柱詩人의 모교에 바치는 獻詩는 실로 永遠속에서 사는 민족문화의 優越、민족의 영원한 生存의지를 東國에서 확인해준다。

이제 72周年을 맞은 오늘의 東國은 실로 三寶와 이겨레와 함께 7個 單科大學에 44個 學科와 3個의 大學院、그리고 갖가지 附屬 硏究機關을 자랑한다。모색하는 東國。中興의 터전을 다져가는 캠퍼스는 祝祭가 한창이다。

開校 72周年을 맞은 캠퍼스

본교는 지난 8日 開校 72周年을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東國祝典」 행사를 벌이고 있다。이날을 맞아 東岳에 울려퍼지는 젊음과 지성의 대향연이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꽃피고 있다。

□사진ㅡ林翼斗 記者

民族文化 創造의 使命 막중

開校紀念式辭

親愛하는 東國人 여러분!

本人은 먼저 지난 七十二個 星霜에 걸쳐 국가 민족의 多事多難한 시련속에서도 본교의 발전을 위해 貢獻하신 學校法人 東國學院의 歷代理事陣과 歷代 總學長님 그리고 敎授 職員과 三萬동문들의 노고를 높이 기리면서 衷心으로 따뜻한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本人과 함께 그 동안 本大學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위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육과 연구에 熱意하여 校勢伸張에 정성을 다해온 敎授、職員、學生여러분에 대하여도 뜨거운 감사를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東國學校는 이땅의 많은 大學가운데서도 佛敎精神을 建學理念으로 한 國內唯一의 佛敎宗立大學이라는 점이 特性입니다。本大學校가 佛敎를 建學理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보편적인 덕목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덕학이 아니라、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인간형성을 근본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다는것을 뜻합니다。佛敎는 이땅에 들어와 민족신앙으로 定着한 이후 숭고한 護國精神으로 昇華되었고 전통문화예술의 根幹이 되어왔습니다。이러한 民族史的 脈絡과의 係에서 볼 때、우리 東大는 民族의 大學으로서 莫重한 使命이 負荷된 大學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따라서 國內外的으로 본교의 특성을 提高해나갈때만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본교를 跳躍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本人은 總長으로 就任한 뒤에、東大中興의 基本方向으로서 佛敎精神에 根據한 大學의 發展을 設定하고 短期目標로서 개교70주년 기념사업의 推進에 있어서도、本校의 이러한 佛敎的 特性을 우선적으로 考慮했던 첫째、우리 高麗의 조상들이 國難期에 이룩한 八萬大藏經의 影印本 48卷을 完刊한 것입니다。이는 弘大無邊한 부처님의 正法을 널리 펴고、민족의 文化遺産을 永遠히 보존하며 부처님의 法力으로 護民護國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結晶이라고 하겠읍니다。

둘째、世界佛敎學術會議를 열어 오늘의 인류사회에서 佛敎의 役割이 무엇인가를 闡明한 사실을 들수 있고 셋째、護國佛敎精神을 오늘에 되살리고 불교를 바르게 수련하는 도장으로서 본교의 면모를 개설하게 된 것등을 본인은 매우보람있게생각하고 있읍니다。

本校는 이러한 三大事業을 成功的으로 마친 다음 東大中興의 中間目標의 하나로서 敎授와 學生의 복지와 研究施設에 눈을 돌려 福祉會館 세우고、日本富士通의 大型컴퓨터를 寄贈을 契機로 컴퓨터硏究所 겸 運營을 짓고 體育振興策의 一環으로 運動選手 寄宿舍를 順調롭게 完工하게 되었읍니다。이러한 外的인 施設의 備에 못지않게 學術과 體育의 眞的 向上에도 注力하여、교수의 硏究風土 深化와 學生들의 對外競爭에서 괄목할 만한 진출을 기록하고 한 민족 국가의 발전은 物質的인 基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 國家 社會 構成員의 精神姿勢와 意識構造가 勤勉과 自助、그리고 協同 團結이라는 實踐哲學에 얼마나 투철한가에 달려있다고 믿읍니다。따라서 本校가 그동안 祖國을 위해 成就해 놓은 업적들은 東國人 모두가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學校의 中興의 자세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本校앞날의 發展은 首都圈의 人口疎散策과 現校地의 협소등으로 인하여 많은 制約要因을 안고 있읍니다。따라서 昨年初부터 第二校地確保를 計劃하고 마침내 護國佛敎精神으로 總總祥地이자 新羅의 由緖깊은 古都인 慶州地區에 第二캠퍼스의 건설을 서두르게 되었읍니다。그리하기에 本校의 中興展望은 매우 밝은 반면에 많은 難關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그러나 우리의 부처님의 慈悲와 智慧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全東國人의 강인한 의지와 상호협력을 보살펴주시는 부처님의 加護가 있기 때문이라고 本人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各分野에서 母校의 建學理念에 입각하여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學校의 中興의 자세로 확신

躍進東國의 氣慨

社說

大學캠퍼스를 繡놓고있는 라일락이 今年에는 유달리 그 華麗한 色彩를 더하고 있는 이즈음 밤은 하늘아래서 우리는 本大學의 開校 七十二周年의 祝典을 맞이하게 되었다。年年歲歲, 이 부례이되면 學生들의 感慨는 새롭게 하기에 어울리는 名節이라는 점에서 모두 提案하여 그 가운데서 가장 가능성이 큰것을 日本側外交當局에 打診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 北傀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려 하며 접근의 媒介로서의 3者會談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兩者의 접근및 3者會談으로 제기될 수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韓半島問題에 대한 會談의 可能形態

韓半島問題를 둘러싼 국제적 성격을 갖는 會談의 형태를 생각할에 있어서는 다음 세가지의 狀況的 여건을 前提로 하게 될 것이다。하나는 韓半島가 分斷되어 南北에 각각 異質的인 政治體制가 존재한다는 점이다。따라서 韓半島 문제를 論議할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兩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하나는 南北에 각각 三角安保體制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즉 南北韓을 제외하고도 美·日·中·蘇등 네나라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들 4强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참여(승인)하는 會談形態와 會談結果가 바람직하게 될 때 南北韓을 포함할때 6個型이 있을수 있으나 日·蘇除外型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4자회담이라면 대체로 남북한과 美·中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日·蘇제외형, 中·日제외형, 中·蘇제외형, 美·日제외형, 美·蘇제외형, 美·中제외형 順으로 그 可能性이 적어진다。韓半島에 대한 介入度로보아 4자회담은 日·蘇제외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넷째, 3자회담은 南北韓이 參與한다는것을 必須條件으로 함께 4個型이 존재한다。

그가운데서 南·北·美의 3자와 南·北·中의 3자의 會談의 가능성은 南·北·美·中의 3개型만이 重要視될 뿐이다。

이상에서 볼수 있듯이 韓半島問題에 대한 10種이 생각된수 있다。그 가운데서 實現可能性이 큰 몇가지로 압축하여 보자。

3、美·北傀接觸의 要因

韓·美·北의 三者會談은 북피의 미국에 대한 平和協定提議(73年3月25日)에서 비롯된 二者會談에 대응하는 미국의 조치로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三者會談에 대한 이해는 북피의 미국에 대한, 그리고 미국의 북피에 대한 接觸(會談)의 필요성과 길잡이가 된다。

북피가 미국에 대하여 平和協定을 맺자, 즉 接觸(會談)을 하자는 제의를 하는 명분은 미국과 韓國軍指揮權을 가진 미국과의 會談을 통한 平和確保 등이다。그러나 북피가 미국에 接近을 하게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수 있다。

첫째, 韓美離間및 미국의 對韓 支援의 약화등을 통한 한국의 고립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接近한다。北傀가 三大革命力量의 하나로 꼽고있는 國際支援力量을 확보하는 主對象地로 설정했던 亞·阿非同盟勢力圈을 一段階的인 제국화추진과 韓國과의 군사협력관계를 와해시켜 韓國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가능하다는 論理가 성립된다。바로 이점과 關聯하여 북피의 對美和解態度는 미국으로 하여금 南侵우려를 갖지않게 함으로써 이 점에서는 美國의 現政府와 北傀間에 이해의 공통점이 存在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韓半島에서의 우월정을 선전하고 韓國民의 심리적 좌절감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접촉을 피한다。

北傀가 韓半島의 平和및 한민족의 운명을 他國과 논의함에 있어 대표하는 存在임을 보이기위해서 美國과의 協定을 提議했다고 보겠다。3者會談이 이루어진다면 撤軍을 가능하다는 論理가 있을수 있다。

넷째, 韓國을 포함한 자주국방을 착실히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北傀보다 뒤졌던 많은 部分에서 北傀를 뒤쫓거나 앞서게되었다。그런데 美國은 통한 철군과 관련하여 武器支援을 하게 되어 있다。그렇게 되면 北傀의 군사전략에 커다란 어려움이 되어 美接近에 의해서 그것을 豫防하려 할 것이다。

다섯째, 北韓經濟가 둔화되면서 韓國과의 경쟁(특히 軍備)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對美接觸을 하게 된다。

美國과의 平和協定이나 和解가 있게 되면 北傀는 韓國과의 군비경쟁을 압할 수도 있고 따라서는 中共의 경우처럼 美國이나 日本과 경제적 관계를 가질수도 있다。

美·北傀關係는 북피의 필요만으로 접근되거나 改善되는것은아니다。美國이 3者會談을 하려한다는 북피의 말을 믿어야 한다。그래야만 韓國內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불리점을 수정하려 한다。그것은 보장할 수 있는 北傀에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양해가 결말을 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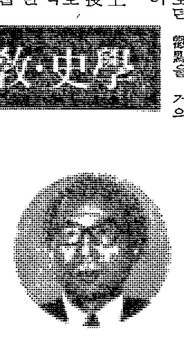
特輯

○…東國傳統의 새로운 方向은 모색되어야 한
○…다. 開校 72周年을 맞이한 본교는 1906년
○…을발하여 安震湖, 朴漢永, 權相老, 高海, 未
○…堂, 芝薰등을 거치며 우리 민족의 슬한 역
○…사의 시련 속에서 찬란한 꽃을 피워왔고
○…특히 본교의 설립정신인 佛敎와 高海로부
○…터 시작된 文學은 우리民族의 文化에 生
○…命力을 부여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傳統
○…을 기반으로 새로운 東國傳統의 方向을
○…모색해야 한다. <編輯者註>

大學의 特性化와 傳統

進步의 開放의 길

佛敎·史學



李龍範 <文理大學長>

人文科學·佛敎중점 特性化 요청 實社會와의 긴밀한 關係 필요

I

19세기말까지의 大學觀은 6백년간의 긴 시일에 걸쳐 유럽에서 이어 내려오던 觀點을 거의 그대로 고수하여 왔었다。

즉 社會의 上流階級層의 敎育을 비롯한 西歐의 일부 大學에서 아직 大學의 保守性과 폐쇄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대부분이 개인적관심과 교수상호간의 접촉에 의하여 결정되며 社會의 動向에서 孤高한 超然한 것이 오히려 崇尙되고 마치 그것이 學의 崇高한 행위인것 같이 믿어 왔었다。

그 대부분은 그 대학의 교육방식의 테두리에서 외면하고 있어서 대학이 자기의 正體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수있다。한국에 있어서 대학의 급격한 發展은 결국 두가지의 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몰만 커지고 속은텅빈 공소한 大學이 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대학과 대학사이의 차이가 소위 네임 밸류에서의 차이일뿐 내용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一律的으로 동일한 패턴의 성격없는 대학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한국의 대학이 이와같은 결과로 발전해온데는 그 필연적인 역사성을 무시할수 없다。정확한 통계숫자는 가지고있지않지만 1945년 해방 당시에 한국에는 대학이라고 이름이 붙은것이 하나에다가 전문학교 몇개가 고등교육기관의 전부였던 것이다。학생수로 말하면 그당시 불과 기백명이던 것이 오늘날은 定員 1만명에 육박하는 대학만도 여러개가 있고, 대학에다 전문학교까지를 합치면 그숫자가 1백을넘을 것이고 학생수는 기십만명이 되지 않을까 짐작이 간다。

흔히 한국에서 대학의 발전은 학교와 학생수와, 그리고 건물등 수의 외형적인 발전이 중요하지않은 것은 아니지만 質的인 발전을 놓고 말한다。이러한 숫자를 근거로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오늘날과 같이 大學이 대단위로 확해가는 시대에 있어서, 대학이 자기의 正體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수있다。한국에 있어서 대학의 급격한 發展은 결국 두가지의 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몰만 커지고 속은텅빈 공소한 大學이 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대학과 대학사이의 차이가 소위 네임 밸류에서의 차이일뿐 내용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一律的으로 동일한 패턴의 성격없는 대학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한국의 대학이 이와같은 결과로 발전해온데는 그 필연적인 역사성을 무시할수 없다。정확한 통계숫자는 가지고있지않지만 1945년 해방 당시에 한국에는 대학이라고 이름이 붙은것이 하나에다가 전문학교 몇개가 고등교육기관의 전부였던 것이다。학생수로 말하면 그당시 불과 기백명이던 것이 오늘날은 定員 1만명에 육박하는 대학만도 여러개가 있고, 대학에다 전문학교까지를 합치면 그숫자가 1백을넘을 것이고 학생수는 기십만명이 되지 않을까 짐작이 간다。

흔히 한국에서 대학의 발전은 학교와 학생수와, 그리고 건물등 수의 외형적인 발전이 중요하지않은 것은 아니지만 質的인 발전을 놓고 말한다。이러한 숫자를 근거로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대부분 無에서 출발하여 학생의 호주머니를 가지고 학교의 건물을 짓고 敎員의 보수를 지불하면서 커나온데에 원인이있다。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大學의 목적과 理念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애당초 謀利를 목적으로 출발한 대학도있고, 간혹 제대로 理念을 가지고 출발한 대학도 중도에 이르러서는 그이념에 집착하다보니 外形的인 열세를 면할 길이없으니 부득이 수지타산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다。그것은 한국의 대학들이 대부분 無에서 출발하여 학생의 호주머니를 가지고 학교의 건물을 짓고 敎員의 보수를 지불하면서 커나온데에 원인이있다。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大學의 목적과 理念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애당초 謀利를 목적으로 출발한 대학도있고, 간혹 제대로 理念을 가지고 출발한 대학도 중도에 이르러서는 그이념에 집착하다보니 外形的인 열세를 면할 길이없으니 부득이 수지타산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그 하나는 몰만 커지고 속은텅빈 공소한 大學이 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대학과 대학사이의 차이가 소위 네임 밸류에서의 차이일뿐 내용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一律的으로 동일한 패턴의 성격없는 대학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한국의 대학이 이와같은 결과로 발전해온데는 그 필연적인 역사성을 무시할수 없다。정확한 통계숫자는 가지고있지않지만 1945년 해방 당시에 한국에는 대학이라고 이름이 붙은것이 하나에다가 전문학교 몇개가 고등교육기관의 전부였던 것이다。학생수로 말하면 그당시 불과 기백명이던 것이 오늘날은 定員 1만명에 육박하는 대학만도 여러개가 있고, 대학에다 전문학교까지를 합치면 그숫자가 1백을넘을 것이고 학생수는 기십만명이 되지 않을까 짐작이 간다。

흔히 한국에서 대학의 발전은 학교와 학생수와, 그리고 건물등 수의 외형적인 발전이 중요하지않은 것은 아니지만 質的인 발전을 놓고 말한다。이러한 숫자를 근거로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대학이 있는가 하면, 産學協同체제에 치중하여 지식의 사회적 봉사에 중점을 두는 대학도 있을수 있다。또한 특히 지식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할것이며, 新入生선발시에 創作에 소질있는 학생을 스카우트하여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등도 좋겠다。또한 현재 학도호국단에서 발간하는 「東國文學」誌를 前記 語文研究所의 사업으로 학술지로 재정적후원에 의하여 권위있는 학교당국이 이 정도의 조치라도 단행하면 東國文學의 특성은 곧 이 大學이 특성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李龍範 <文理大學長>

人文科學·佛敎중점 特性化 요청 實社會와의 긴밀한 關係 필요

I

19세기말까지의 大學觀은 6백년간의 긴 시일에 걸쳐 유럽에서 이어 내려오던 觀點을 거의 그대로 고수하여 왔었다。

즉 社會의 上流階級層의 敎育을 비롯한 西歐의 일부 大學에서 아직 大學의 保守性과 폐쇄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대부분이 개인적관심과 교수상호간의 접촉에 의하여 결정되며 社會의 動向에서 孤高한 超然한 것이 오히려 崇尙되고 마치 그것이 學의 崇高한 행위인것 같이 믿어 왔었다。

그 대부분은 그 대학의 교육방식의 테두리에서 외면하고 있어서 대학이 자기의 正體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수있다。한국에 있어서 대학의 급격한 發展은 결국 두가지의 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몰만 커지고 속은텅빈 공소한 大學이 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대학과 대학사이의 차이가 소위 네임 밸류에서의 차이일뿐 내용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一律的으로 동일한 패턴의 성격없는 대학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한국의 대학이 이와같은 결과로 발전해온데는 그 필연적인 역사성을 무시할수 없다。정확한 통계숫자는 가지고있지않지만 1945년 해방 당시에 한국에는 대학이라고 이름이 붙은것이 하나에다가 전문학교 몇개가 고등교육기관의 전부였던 것이다。학생수로 말하면 그당시 불과 기백명이던 것이 오늘날은 定員 1만명에 육박하는 대학만도 여러개가 있고, 대학에다 전문학교까지를 합치면 그숫자가 1백을넘을 것이고 학생수는 기십만명이 되지 않을까 짐작이 간다。

흔히 한국에서 대학의 발전은 학교와 학생수와, 그리고 건물등 수의 외형적인 발전이 중요하지않은 것은 아니지만 質的인 발전을 놓고 말한다。이러한 숫자를 근거로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대학이 있는가 하면, 産學協同체제에 치중하여 지식의 사회적 봉사에 중점을 두는 대학도 있을수 있다。또한 특히 지식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할것이며, 新入生선발시에 創作에 소질있는 학생을 스카우트하여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등도 좋겠다。또한 현재 학도호국단에서 발간하는 「東國文學」誌를 前記 語文研究所의 사업으로 학술지로 재정적후원에 의하여 권위있는 학교당국이 이 정도의 조치라도 단행하면 東國文學의 특성은 곧 이 大學이 특성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文學傳統의 復活

語文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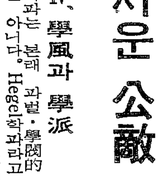
李昌培 <敎養學部長>

東大學風의 새로운 定立을 위한 提言

「語文學硏」 설치, 質的발전 유도해야

우수人材·文學誌 지원확대 緊要

사용하는 텍스트까지도 상당히유사한 관박이 대학들이 되어버렸다。A대학에서 語學實習室을 설치하면 B대학에도 설치하고, A대학이 敎養學部를 폐지하면 B대학도 폐지하고, A대학이 서머스쿨을 개설하면 B대학도 개설하는 등 모든 大學을 定型的인 대학으로 몰고온데에 文敎部의 지나친 行政指示에 의한 획일적인 사고방식이 큰 원인이있다。文敎部는 入學生의 정원을 규정함과 卒業生에게 學士號를 발급하며, 卒業生에게 論文을 써내라고, 敎員들은 실력보다는 논문의 편수로 승진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대학이 있는가 하면, 産學協同체제에 치중하여 지식의 사회적 봉사에 중점을 두는 대학도 있을수 있다。또한 특히 지식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할것이며, 新入生선발시에 創作에 소질있는 학생을 스카우트하여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등도 좋겠다。또한 현재 학도호국단에서 발간하는 「東國文學」誌를 前記 語文研究所의 사업으로 학술지로 재정적후원에 의하여 권위있는 학교당국이 이 정도의 조치라도 단행하면 東國文學의 특성은 곧 이 大學이 특성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韓相範 <法學科敎授>

批判精神 마비되면 學問의 존립 무의미

出世主義는 가장 무서운 公敵

社會科學을 學問을 타락시킨다

I、問題意識과 批判的 感覺

社會科學이란 그 生涯자체가 사회현상의 수수께끼에 도전하고, 既成權威의 檢證에서 비롯되는것이므로 批判的인 그 宿命처럼 너고있다。그래서 知的인 모험·탐구에의 의욕과 현실 긍정의 제자리걸음에서 맴돌수박에 없다。A·토인비가 경고하고 있듯이 「역사적 敎訓을 편협한 애국심을 진정한의 미에서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이 지닌 의미는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본다。여기서 일개 大學의 입장에서 社會科學을 말한다고 해도 비단 그것은 부분에 한정된 것일수 없고 한국 大學에서의 社會科學의 문제로서 다루게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데 있다는 점을 알수 있을 것이다。

II、出世主義는 學問을 타락시킨다

社會科學이란 분야가 社會·政治 분야에서 순수 전문지식과 기술적 도움을 요청받고있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사회에 봉사해야할 사명이 있다。그런데 그 봉사에 있어서 사회나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 본래의 궤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학문자체의 歪曲에 이르는 위험을 초래한다。

독일 막스베버나 프랑스 뒤르케임 같은 학생이 상호간에 知的인 자극, 나아가서는 충격을 주면서 나날이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존경과 친애의 의미에 助言, 격려와 이루어야 한다。무관심과 방관, 無事, 無氣力과 現實滿足, 안이와 無事, 연구하는 데에는 이러한 사상가의 철학체제를 추종하는 후학에 의해 조성된 학문적 정향의 궁동된 멘(脈)을 뜻한다。또는 法學에서 시카고학파라고 하면 리얼리즘 法學의 본산으로서 시카고大學 중심의 유독을 뿌리칠수 없는 사회과학자 특유의 관념성이 있다。그래서 大學은 인문과학에 치중하여 특색있는 학풍을 이룩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본래 이 大學은 佛敎정신을 建學理念으로 출발하여 한국에서는 유일한 佛敎宗立大學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이것은 이 大學의 특성이고 강점이다。세계 2大宗敎의 하나인 佛敎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大學으로서 70년의 大學전통을 누려왔다는 것은 다른 어떤 大學이 추종할수 없는 큰 利點이고 자랑거리이다。東國大學은 이 利點을 살려보건대, 이

第7.08·9號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認可 <우편번호100> 東大新聞 西紀1978年5月9日 (火曜日) 【4】

知識人과 價値觀問題

張庚鶴 〈大學院長〉

非人間的 狀況, 목표 상실 극복을
單一가치 집착서 벗어나야
社會變遷에 맞는 價値선택 중요

니이체처럼 에민하지 않더라도 인생에 사로잡힌 같은 의문과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없다。또한 「破滅」라는 소설을 쓸때 어린자식이 죽어가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고 한다。이런 價値觀은 파슨스에 의해 가치의 委託(Commitment)이라고 한다。이것은 하나의 가치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이다。

그것은 단일한 가치의 추구에 절대적의의를 부여하려는 전통적 사고의 제1차 세계대전을 말할 수 있다。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후퇴한후 각광을 받고 동정하였으며 정치적 판단으로 보다 폭넓게 정치적 현실의식이 強調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치의 다단계성과 기준가치에의 맹목적위탁, 추종을 배척하고 선택에의한 가치목표의 설정을 제기하였다。가치는 고귀한 희생을 통한 선택을 거쳐 도달 또는 얻어지는 객체인데 행위자가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런 객체를 지향할때 할때로 성립하는 것이다。

行爲者를 그런한 가치에로 이끌어 가는것은 가치의식이 있기때문이다。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후퇴한후 각광을 받고 동정하였으며 정치의식은 보다 폭넓게 정치적 판단으로 사용되고 협의의식이 強調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佛教傳統文化 實現에 중점

相對가치 絶對가치조화 꾀해야

立定관 가치으로 緣起思想으

〈佛敎大敎授〉 金 鎔 貞

I

뷰이는 兒童의 成長段階를 4、5세로부터 7、8세까지의 1段階와 7、8세로부터 11、12세까지의 第2段階로 나누어 제1단계는 想像과 理實, 觀念과 事實(생각과 실천)이 未分化로 있으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現在 政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사상과 전통적인 정신문화의 재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1

오늘날 우리 사회의 人工的인 公害로 인하여 生存의 희열들을 구가하는 자연이 汚染되어 있다。

佛敎에서는 이 자연을 法爾도는 法爾法然(法自然)이라고 하며 無作爲的 자연의 理法을 法願의 道理라고 해서 人間이 自然을 損傷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안된다는 佛敎的인 입장을 잘 엿보여 준다할 것이다。

부처님의 自然및 生命에 대한 敎訓을 佛典의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經說을 대충 추아본다로서 佛敎의 自然, 生命 愛護의 근본정신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오늘의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길까지도 모색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Ⅱ

太子刷護經에는 『普曜經은 마땅히 慈心으로 十方의 人民및 날벌레 길벌레 들에 이르기까지 哀念하여 赤子와 같이보고 모두 피로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있으며, 正法念處經에는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개미지렁이 날벌레 및 그 밖의 여러 곤충이 길바닥에 있으면 그 벌레를 피하여 멀리 돌려 가야하니, 慈悲心으로써 衆生을 보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졌다。

부처님은 또 四分律에서 밥을 함부로 파헤쳐서 다른 생명들의 命根을 끊는 일이 없게하였으며, 大方便佛報恩經에서는 『내가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欲界 色界 無色界에 있는 25種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즉 有形 無形과 4足 多足및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의 목숨이 있는 자신의 목숨을 싫어한다。 자연을 보호하고 모두 피해야 한다』고 하여 자연과 생명을 아끼고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Ⅲ

앞에서 대충 佛典에 보이는 佛陀의 生命및 자연수호에 관한 敎說 몇가지를 찾아보았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佛陀가 생명을 가진 物體는 動·植物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殺生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었다。

모든 생명을 꼬무하게 보고 삼의 主宰者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았던 佛陀였으므로 온 宇宙의 自然까지도 하나의 생명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사람만이 아닌 곤충에 까지도 그목숨을 빼앗지 못하게 하였고 또 초목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것을 금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佛陀가 그처럼 慈悲心을 강조하였던가닭은, 그 각각 個體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때문이기도 하겠지마는 또한 大自然의 생명을 保全하지 속하게 하려는데에 그 핫점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佛陀의 精神에서 본다면, 내가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벌레와 초목까지도 죽음을 싫어하므로 모든 생명을 내몸 아끼듯 慈悲心으로 愛護하는 것이 바로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그와 같이 모든 생명을 慈心으로 네몸 사랑하듯 해야한다면, 인간을 피곤히 하고 생활을 위협하는 해충이나 雜草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는 反問이 따르게 될것이다。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自然的 調和의 理法에 順應하며 自然理法의 하나라고 한다면 의당 人間生存에 불가결한 농작물을 해치는 잡초와 해충을 驅除해야할 것이다。

田畓에 잡초를 뽑는 것을 당연한 일로 보았던 부처님이므로, 오늘날의 구충제사용을 不當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자연의 오염과 보호문제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草木의 枝葉도 꺾지 말고 산 초목의 생명을 傷하지 못하게 하였던 부처님은다시 生草木의 위에 大小便과 가래침을 뱉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물속에 放便 放尿와 가래침 뱉는것을 못하게 금하였다。

이상의 여러가지 事例들을 통하여 佛陀가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것은 언제나 慈心이 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인간생활을 위한 전적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인간 不殺生이나 人間本位의 자연수호로써 자연의 일체의 산 생물들을 대하고 자연의 운행에 감사하면서 慈心으로 正法과 善을 행하게되면 自然은 順化되어 인간에게 해로운 害蟲 害物이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殺生과 싸움을 행하지 말라는것은 인간을 인간위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것이다。

Ⅳ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부처님은 阿彌陀佛國인 極樂淨土나 彌勒佛 出現時의 兜率天 龍華會 등과 같이 현재 없는 나무와 못과 가장 아름다운 국과 새들과 함께 즐거움이 있는 곳을 이상적인 세계로 보았을 뿐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와같이 추호의 公害도 없는 아름다운 곳을 淸淨無垢한 자비의 佛心으로 인하여 결과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法悅이 자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은 인간의 慈心과 善行이 자연을 살리고 다시 인간을 살리게 되다고 할 수가 있다。 인간을 위하여 자연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던가닭은, 그 각각 個體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때문이기도 하겠지마는 또한 大自然의 생명을 保全하지 속하게 하려는데에 그 핫점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佛陀의 精神에서 본다면, 내가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벌레와 초목까지도 죽음을 싫어하므로 모든 생명을 내몸 아끼듯 慈悲心으로 愛護하는 것이 바로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수가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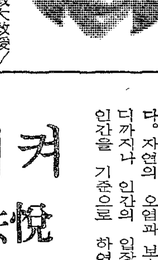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그와 같이 모든 생명을 慈心으로 네몸 사랑하듯 해야한다면, 인간을 피곤히 하고 생활을 위협하는 해충이나 雜草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는 反問이 따르게 될것이다。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自然的 調和의 理法에 順應하며 自然理法의 하나라고 한다면 의당 人間生存에 불가결한 농작물을 해치는 잡초와 해충을 驅除해야할 것이다。

田畓에 잡초를 뽑는 것을 당연한 일로 보았던 부처님이므로, 오늘날의 구충제사용을 不當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자연의 오염과 보호문제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草木의 枝葉도 꺾지 말고 산 초목의 생명을 傷하지 못하게 하였던 부처님은 다시 生草木의 위에 大小便과 가래침을 뱉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물속에 放便 放尿와 가래침 뱉는것을 못하게 금하였다。

이상의 여러가지 事例들을 통하여 佛陀가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것은 언제나 慈心이 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인간생활을 위한 전적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인간 不殺生이나 人間本位의 자연수호로써 자연의 일체의 산 생물들을 대하고 자연의 운행에 감사하면서 慈心으로 正法과 善을 행하게되면 自然은 順化되어 인간에게 해로운 害蟲 害物이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殺生과 싸움을 행하지 말라는것은 언제나 慈心이 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인간생활을 위한 전적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인간 不殺生이나 人間本位의 자연수호로써 자연의 일체의 산 생물들을 대하고 자연의 운행에 감사하면서 慈心으로 正法과 善을 행하게되면 自然은 順化되어 인간에게 해로운 害蟲 害物이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佛敎大敎授〉 金 煥 泰

人間貪心환경오염 시켜

佛淨土의 自然에 영원한 法悅

存共人間과自然,悲慈行善

佛敎에서본 青少年과 價值

〈佛敎大敎授〉 李 箕 永

特集 무너진 오신날 紀念세미나 主題發表 要旨

精神的 傳統의 現代的 價值로 본 佛敎의 政治·經濟·文化의 새로운 展望

I

우리는 지금 韓國的 政治 經濟 文化의 새로운 秩序를 모색하는 時代的 狀況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時代的 狀況속에서 우리 佛敎의 전통문화가 理論과 實踐의 統一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을 간단히 지적하였거니와 오늘의 物質文明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世代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佛敎의 立場에서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걸수 있는 것은 물질문명의 본고장인 西洋人들을 스승으로 가진 오늘의 정신적 극복을 위하여 통양사상에서 위기의 그것을 찾아내고 애쓰고 있는 만큼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정신문화를 열어나가는 指導者들이 社會를 多元的인 諸思想을 하나의 共通的 同質性을 갖춘 것으로서 統合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立法·行政·司法 三權의 三者사이에는 여러 問題가 露呈되어있는바 첫째, 영원한 「法」에 一致하는 立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 둘째, 正法을 行하는데 미흡하고 세째, 正法을 毁謗하거나 破壞하는 것을 단호히 制압하는 점등이다。

이러한 問題는 주로 三權을 委任받은 사람들의 過失, 無能力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문제와 관련해서 佛敎는 人間을 보는 시각이 根本的으로 다르다。 三權을 委任받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利慾에 눈이 어두워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佛敎는 人間을 本來 善한 存在로 보고 있으며 또 그 本性을 信賴하고 있다。 그러므로 佛敎는 人間의 本性을 信賴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 本性을 善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佛敎는 人間의 本性을 信賴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 本性을 善으로 보고 있다。

둘째 문제는 國民의 敎育에 관한 것이다。 佛敎는 人間이 宇宙안에서 다른 人間들과 떠불어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敎訓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佛敎는 오늘의 物質文明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世代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佛敎의 立場에서 우리 佛敎의 전통문화가 理論과 實踐의 統一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을 간단히 지적하였거니와 오늘의 物質文明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世代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Ⅱ

國家가 法을 制定하여 人間行爲를 律하며 法의 運營을 감시하는 기능을 각각 할때 비추어 佛敎에서 「法」의 本質문제 「法」과 諸法律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佛敎는 人間이 宇宙안에서 다른 人間들과 떠불어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敎訓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佛敎는 오늘의 物質文明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世代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Ⅲ

「饒益有情」이란 모든 衆生들에게 공정한 利益을 준다는 大乘佛敎의 一般用語이고 「弘益人間」은 理想의 開國理想을 表現한 用語로 兩者間에는 不可分의 관계가 있다。

佛敎의 理想은 調和있는 하나의 現狀에 있다。 이것을 元曉는 「一心」이라 하고 一然은 「無碍」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佛敎는 모든 衆生들에게 참된 이익을 줄수있도록 자기의 開發 自我實現에 힘써야한다。 또한 모든 중생들을 折伏하여 모든 사람들이 佛敎의 진리체계를 발견할 수 있게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佛敎의 精神을 제대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時間的 展望을 무한히 확대되어 전통문화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自己開發 自我實現에 주력할 것이다。 따라서 未來가 불교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정신문화의 창조적 활동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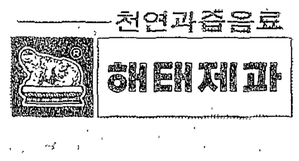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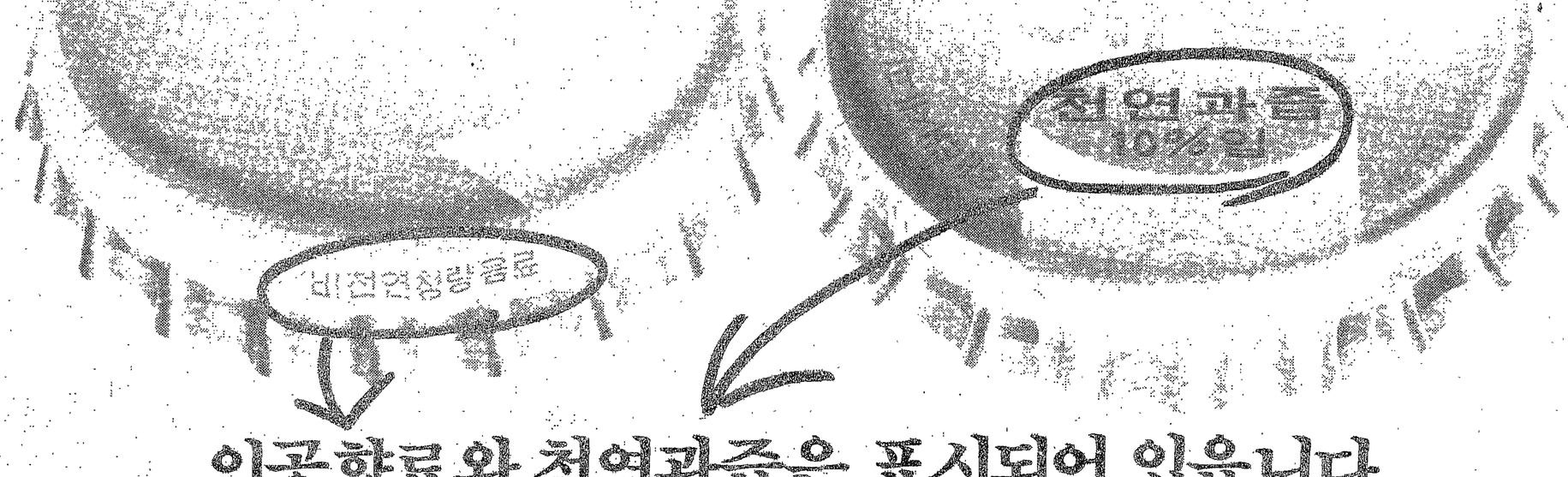
佛敎는 人間의 菩薩化, 佛化를 向한 衆心을 중용하고 길을 提示하여 成佛을 成就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佛敎는 오늘의 物質文明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世代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Ⅴ

우리나라 政治·經濟·文化에 새로운 秩序가 싹터 발전하자면 무엇보다 國民 한사람 한사람이 「一心淨化」해서 法을 알고 法을 實踐하는 能力을 키우고 法을 守護하면서 나라 同胞와 衆生과 大自然사이에 하나의 生命共同體가 實現되도록 하는 한 가지 일에 邁進하는 것만이 「心要」하다。

천연과즙음료





인공향료와 천연과즙은 표시되어 있읍니다。

청량음료에는 인공향료로 만든 비천연음료와 천연과즙으로 만든 천연과즙음료가 있읍니다. 천연과즙인지 비천연음료인지는 병마개에 표시되어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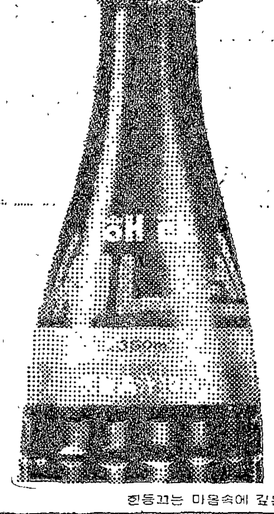
천연과즙음료의 선구자—해태써니텐

제품안내

종류	품명	용량	상자당 수량	종류	품명	용량	상자당 수량
쥬스류	오렌지쥬스	1400g	6 캔	넥타류	오렌지넥타	250g	24 캔
	오렌지쥬스50	200g	24 캔		사과넥타	250g	〃
	도마도쥬스	250g	〃		복숭아넥타	250g	〃
탄산음료	써니텐	350mℓ	24 병	선물용	쥬스넥타A (캡·Opener포함)		12 캔
	써니텐	200mℓ	〃		쥬스넥타B		12 캔
	사이다	350mℓ	〃		써니텐	350mℓ	12 병
	사이다	200mℓ	〃		써니텐	200mℓ	24 병
	믹서류(4종)	350mℓ	〃				

마셔봐요~ 정말 좋아요

해태 써니텐 천연과즙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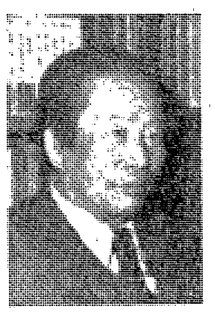
₩140

힘등고는 마음속에 깊은 애국 숨어있다.

抗日투쟁

中央佛專시절

—趙明基 博士에게 들어본



趙 明 基
<前本校總長>

韓國來 민족적 시련기인 1906년 5월8일 佛敎界 先覺者들의 뜻을 모아 明進學校로 開校한 이래, 日帝의 탄압에 2차례의 閉校를 당하는 수난속에서도 抗日 學生運動을 主導해온 본교가 이제 개교 72주년을 맞았다。이에 本校의 前身인 中央佛專 1회 卒業生이며 64년부터 4년간 본교 5代總長을 역임한 趙明基 前總長을 찾아 당시의 치열했던 學生運動의 생생한 肉聲을 들어 본다。

感激의 出獄

—박사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학창시절, 그리니까 저희 學校의 前身인 佛敎전수학교의 開校 前後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당시 치열했던 抗日 학생운동에 관한 말씀을 「大學史의 證言」으로 저희 후배들에게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趙=그러니까 1923년에 중앙학림이 폐교당하고 남후 5년만인 28년에 불교전수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중앙학림이 폐교당한 것은 당시 학교재단인 「주지연합회」의 분열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사실은 3·1운동에 학생들이 떠거 가담했던 것이 총독부의 비위를 건드렸던 것이었지요。

3·1운동 전후의 교육열은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알아야 산다」「알아야 해 놈을 이길수 있고 독립할 수있다」는 것이었지요。그래서 지금의 중·고등학교격인 고등보통학교의 입학시험에선 보통 2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나는 고향인 통래에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동도사에서 출가했습니다。그즈음 숭려들의 고등교육을 위해 전국각 사원의 토지중 10분의1씩을 거출해 벼 4만석으로 재단을 설립, 총독부에 「佛敎전문학교」의 인가신청을 냈었지요。총독부에서는사원의 재산이 독립자금으로 유출될 것을 염려, 인가를 내주지않았습니다。결국 사원의 재산을자기네들이 갈목, 관리하겠다는 「사찰령」을 내리고 나서야, 그것도 전수학교로 인가를 해주었어요。

—초창기의 진통이 무척 심했던것 같습니다。그럼 학사행정전반과 당시의 치열했던 학생운동에 대해서…

趙=그때 초대교장은 宋宗燾씨였고, 첫입학생은 각사찰에서 재산희사비용에 따라 배당된 學生定員대로 입학추천을 하게되어있었지요。애초에 전문학교로 설립할 계획이였던 만큼, 학칙을 전문학교와 같았습니다。

그때 학교의 위치는 명륜동1번지 였는데, 만주 군관학교 (신흥학교)를 졸업한 朴燾熙씨등 뜻을 품은 學生들의 많은 활발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지。

처음에는 전수학교로 認可가난것에 분개하여 시작된 同盟休學등 투쟁이 民族精神을 역제하려는 총독부측에서 끝내 認可를하지 않자 민족적 感情이 적극적으로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反日感情을 주로 學監部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잘 나타나곤 했습니다。그 당시는 강연회를 한번 개최하려면 총독부에서 허가를 받고도 수명의 형사가 임석, 감시를 했습니다。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원이였던 황의돈氏가 천도교 교회당에서 고려대정경에 대한 강연을 하며, 몽고침입에 대한 투쟁심을 일제치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에 결부시켜 이야기하다 학생주최자와 함께 연행된 일도 있고…

우리 학교 학생부에서 주최한 학생이 상당히 신랄한 풍자로 日帝를 야유했던 일도 기억나는군요。「나의拔齒感」이란 연제였는데, 결론은 「썩은 이(齒)는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결국 주최측과 연사는 모두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20년대 후반, 당시 우리 학교 학생들이 主導하던 「佛敎青年會」는 항일 학생운동의 주동세력이였습니다。회원들로는 대부분 본교 교직원이였지만, 佛敎界 인사나 독일에서 유학하였던 白性郁 (본교 초대총장) 박사같은 분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 주셨였지요。中央學林이 폐지된것도 白性郁박사가 3·1운동에 가담했던 때문이였으니, 이 「佛敎青年會」도 총독부의 탄압이 무척 심했였습니다。

그리고 萬海선생의 장엄葬도 자주 가졌는데, 언제나 성황을 이뤘습니다。선생은 늘 日警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한번은 『선죽교에 흘린 정몽주의 피는 몇 만겁을 씻어도 씻을수 없다』 고강연의 서두를 꺼내자마자 「강연중지」를 명했는데, 그러자 청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日警들에 대치, 폭동을 일으켰던 겁니다。그때가 1929년 가을의 일이였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對談=李政珪편집부장>

◇지난달 24일 日本「나라」大에서 열린 제3회 「民俗學學術會議」에 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安啓賢교수。

萬海선생 講演에 서두부터 「중단!」소동…知識人의 民族的 使命절감

佛敎와 民俗의 結合狀態논의

「五岳信仰」등 各國特殊性 밝혀

韓·日·中 學者들 參加 報告記

會議參加

韓國側 우리들로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다。

심포지움 제1부 「葬送儀禮」에서는 死者儀禮와 供養의 방법에 있어서 民俗宗敎와 佛敎와의 관계가 분석되고 각 民族간의 비교가 시도되었다。葬儀의 방법과 墓制 및 死者崇拜등도 考慮되였다。

본교 史學科敎授이며 본교의 佛大講師로 出講하고있는 洪潤植박사 (圓光大學敎授)가 韓國側 葬送儀禮」라는 論題로 하였는데, 氏가 지적한 引路王菩薩과 金剛經塔茶羅尼에 대한 신앙의례는 일본에서는 볼수없는 것인만큼 일본인 학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심포지움 제2부는 「他界觀念」이 주제였다。葬禮儀式은 타계관념에 기반을 두는것이지만, 그 유형의 민속종교인 神道와 불교의 타계관념이 서로 융합하여 성립된 일본의 他界觀念이 韓國과 慶尙의 타계관념과 서로 비교 검토되어 각기 그 상위성의 원인과 장례의식에의 영향이 논의되었다。여기서는 慶熙大學 金泰坤교수가 「韓國巫俗의 他界觀」을 가지고 주제발표하였다。

심포지움 제3부 「神과 佛」에서는 신앙대상으로서의 「既存的인 민속종교의 神이 외래적인 佛과 어떻게 접촉하는 가운데 상호관계를 가지게 되였으며 또 그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존속하고 있는가를 中國·韓國·日本을 중심으로하여 서로 비교검토되였다。神과 佛과의 習合 내지 共存이 한국의 경우처럼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알수가 있었다。

토론은 심포지움을 각부마다 있은 뒤에 또 종합토론이 진행되였었는데, 한국측으로서는 睦楨培 조교수가 전후 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질의를 제기함으로써 종합토론은 장장 4시간에 걸쳐 그야말로 眞摯하고 熱心진한 가운데 진행되였던 일은 우리로서는 여간 유쾌한 일이 아닐수없었다。

①新羅에서는 불교신앙과 山岳信仰이 習合된 五岳信仰이 있었는데 이같이 특정된 수로 묶어진 山岳信仰이 日本에서도 있었는가?

②「死後가 있는가」하는 子路의 질문에 孔子가 「生도 모르는데 死後를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답한 것을 본다면 종국의 死者儀禮는 儒敎와 무관계한것인가?

③일본에서는 대개 婚姻의례를 神社에서 하는한편 장례는 불교의식에 의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신앙의식 면에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마음은 미숙한 것이기는 하지만 심포지움 제3부에서 한국측 주제로 될자가 보고한 페이퍼의 要旨는。

①新羅에서는 불교신앙과 山岳信仰이 習合된 五岳信仰이 있었는데 이같이 특정된 수로 묶어진 山岳信仰이 日本에서도 있었는가?

②「死後가 있는가」하는 子路의 질문에 孔子가 「生도 모르는데 死後를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답한 것을 본다면 종국의 死者儀禮는 儒敎와 무관계한것인가?

③일본에서는 대개 婚姻의례를 神社에서 하는한편 장례는 불교의식에 의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신앙의식 면에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마음은 미숙한 것이기는 하지만 심포지움 제3부에서 한국측 주제로 될자가 보고한 페이퍼의 要旨는。

佛敎와 民俗의 結合狀態

韓國의 「五岳信仰」등 各國 特殊性 밝혀

日本「나라」(奈良)市에 있는 元興寺佛敎民俗資料硏究所와 奈良大學 主催로 奈良大學에서 「東아시아의 民俗宗敎와 佛敎」라는 共同主題로 지난 4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中國(臺灣)·韓國·日本을 위시하여 美國·佛蘭西등의 學者들이 모인 가운데무開催된 第3회國際民俗學術會議에 韓國側代表의 한사람으로서 本校 睦楨培조교수가 參加 報告記

◇지난달 24일 日本「나라」大에서 열린 제3회 「民俗學學術會議」에 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安啓賢교수。

東아시아의 民俗宗敎와 佛敎

제3회 「民俗學 學術會議」

—참가報告記 및 主題發表 要旨—

安 啓 賢 <文理大敎授>

佛敎와 샤마니즘과의 習合

韓國에 있어서

韓國의 전통적인 佛敎寺院에는 佛·菩薩像을 奉安한 殿堂의 예외없이 山神과 七星등의 神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殿閣이 세워지고 있다。그뿐만아니라 각층의 佛敎儀禮에 있어서도 佛菩薩에의 供養과 더불어 諸神에의 기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같은 信仰행위는 스스로 인간성의 自覺에 의하여 佛敎本然의 순수한 자세라고는 할수없다。원래 佛敎 그 자체가 印度에서 발생해 당시서부터 在來의 土俗的인 諸神과 對立的立場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어디까지나 護法의 善神으로서 佛國土에 수용된 것이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후기에 傳來한 外來의 佛敎가 在來의 샤아마니즘的 文化基層의 위에 뿌리를 박아 土着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그들 諸神이 護法의 善神이라는 성격에 그치지않고 그 神들이 지닌 본래의 神格이 히 강조되면서 각기 그 기능에 따라 독립적인 信仰形態를 나타나게 되었다。그것은 異質感없이 융화되어 왔다。여기에 韓國佛敎에 있어서의 신앙의 2중성 즉 불교와 샤아마니즘과의 習合 내지 共存性을 보게된다。

더개 宗敎는 그 敎團組織이나 敎理體系에있어서 발달과 深化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으로는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희구한다는점에서 공통된 것이라 하겠다。呪術儀禮에 의하여 天災地變의 禍를 가시게 하며, 질병의 쾌유와 長壽를 빌고, 亡者를 弔慰하며 또는 外來侵入者를 격퇴하려는 아마 神堂에서 벼룩어졌을 慰靈祭가 佛寺에서 八關會라는 이름아래 擧行되었다는데에 意義가 있다。高麗時代에 내려와서도 해마다 11월15일에 국가적행사로서 八關會가 열리어 이날國王은 法王寺에서 분향하기로 되어있었으며, 가무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적 대회가 행사의 主流를 이루었다。太祖 王建이 그 點에서 자연 우리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여주는 것이 있다。

高麗王宗代에 利國延基를 목적으로 八聖堂이 세워져 八聖을 모신 일이 있었다。國內 名山을 여덟골라다는 각기 그 산에 상주하고 있는 聖人 八位를 모신것이다。그 하나인 白頭山의 성인은 太白仙人이지만, 그 實體는 文殊師利菩薩로한다。이것은 명백히 神과 佛과의 兩者의 宗敎的優劣을 取한 것이어서, 在來의 샤아마니즘적인 山岳崇拜가 外來의 佛·佛思想과 習合한 것이라하겠다。이 八聖思想은 高麗의 八關會와 또한 될 것이다。

오늘날 韓國佛敎寺院에 山神閣이 모셔져있는 것도, 법 (庵) 을 山神의 使者 또는 山神 그것으로 여기어온 在來의 山神信仰과 山岳崇拜가 佛敎와 서로 習合되어온 역사적產物이 아닐수없다。그것은 現實的인 일반대중과 함께 호흡하여온 불교신앙의 한 역사적인 자취인 것이다。

祈福의 共通性에서 융합可能

八關會·山神閣은 綜合的 宗敎현상

또 없다。그러나 國家的佛事로서 신라나 고려에서 열렸던 八關會는 佛敎本來의 순수한 法會와는 거리가 먼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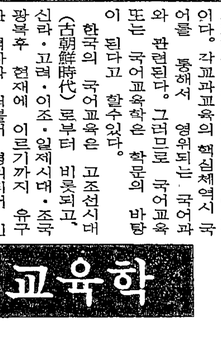
新羅에서 처음으로 國家的行事로서 八關會가 開設된것은 眞興王때의 일이다。10월에 이지만 戰歿將兵의 魂靈을 弔慰하기위해 佛寺에서 八關會가 열린 것이다。이때 八戒도 닦았는지는 알수없으나, 國家的行事로서 종래의 十訓要가운데서 明示한바와같이 八關會開設의 目的은 夫神, 龍神·山神·水神등 諸神에의 융합적인 종교적축제였던 것이다。朴燦璨氏信仰은 彌陀·彌勒의 불교신앙과 水神신앙이 習合된 것이지만 추수감사등, 諸神에대한 종합적인 축제가 佛敎의 八關會라는 이름아래 열리였으니, 이는 在來의 民族종교인 「낡안 (光明) 」敎와 普通된다는 점에서 자연 우리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여주는 것이 있다。

高麗王宗代에 利國延基를 목적으로 八聖堂이 세워져 八聖을 모신 일이 있었다。國內 名山을 여덟골라다는 각기 그 산에 상주하고 있는 聖人 八位를 모신것이다。그 하나인 白頭山의 성인은 太白仙人이지만, 그 實體는 文殊師利菩薩로한다。이것은 명백히 神과 佛과의 兩者의 宗敎的優劣을 取한 것이어서, 在來의 샤아마니즘적인 山岳崇拜가 外來의 佛·佛思想과 習合한 것이라하겠다。이 八聖思想은 高麗의 八關會와 또한 될 것이다。

오늘날 韓國佛敎寺院에 山神閣이 모셔져있는 것도, 법 (庵) 을 山神의 使者 또는 山神 그것으로 여기어온 在來의 山神信仰과 山岳崇拜가 佛敎와 서로 習合되어온 역사적產物이 아닐수없다。그것은 現實的인 일반대중과 함께 호흡하여온 불교신앙의 한 역사적인 자취인 것이다。

學問의 世界

專攻으로 가는 길



<사범대교수>

김 성 배

국어교육학

<27>

한국교육의 중심제는 국어를 매개로해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이다。각교과교육의 핵심체역시 국어를 통해서 영위되는 국어과와 관련된다。그런므로 국어교육 또는 국어교육학은 학문의 바탕이 된다고 할수있다。

한국의 국어교육은 고조선시대 (古朝鮮時代) 로부터 비롯되고, 신라·고려·이조·일제시대·조국광복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영위되어 민족문화를 발전, 풍성시켜왔다。그러나 체계적인 국어교육과 민족적인 국어교육은 국어교육만은 국어교육이다。국어교육을 역시 광복후부터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한글) 을 창제 반포하기까지는 우리민족자체의 훌륭한 음성언어 (音聲言語)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자언어(文字言語) 를 가지지 못했다。그래서 어떤고도 발달한 한문자 (漢文字) 를 그대로 쓰거나, 그것과 소리를 빌려 〈借字〉 이두문자 (吏讀文字) 를 만들어 써왔다。거기의 사상과 감정 또는 뜻을 펴냄에 있어 매우 구차하고 불편하며, 부자유스러움을 감수해야 했다。그것도 일부 특수계층, 소위 귀족적으로 국한되어 있었다。그래서 어떤고도 발달한 한문자 (漢文字) 를 그대로 쓰거나, 그것과 소리를 빌려 〈借字〉 이두문자 (吏讀文字) 를 만들어 써왔다。거기의 사상과 감정 또는 뜻을 펴냄에 있어 매우 구차하고 불편하며, 부자유스러움을 감수해야 했다。그것도 일부 특수계층, 소위 귀족적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나 양반계급에서나 벗어고 썼다。일반언중 (一般言衆) 에서는 배우지도, 쓰지도 못하였다。이 경우를 우리는 매우 비정상적인 국어교육이라고 규정할수 있다。

진정한 언어생활·언어교육·국어생활·국어교육이란 통일되고 표준화된 소리말과 글자말이 있어야 영위된다는 것을 언어학사 (言語學史) 와 국어학사 (國語學史) 가 증명하고 있다。곧 언문일치 (言文一致) 가 이룩되었을 때, 비로소 정상적이고 정당한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각 교과목의 교육을 통하여 영위되어야하고, 말하기·듣기·쓰기 (짓기)·읽기의 언어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 (領域) 을 물론, 말과 문화의 바탕이 되는 민족의 말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조국광복은 비로소 우리의 말과 글을 되찾아 정당한 국어생활을 하게된 하나의 전기이다。국어에 대한 민족적인 열망은 「국어교육학」의 정립을 촉발한 것이 된다。

민족의 번영이나 국가의 발전 또는 문화의 융성은 교육의 힘을 기반으로 한다。한국교육의 발전은 각급학교의 교육이 잘되고 정상화된 것을 뜻하며 학교교육이 잘 되였다는 것은 각 교과목의 교육이 잘 되였다는 증거이다。

이에 대해 M과의 L상급 정학가들이 출연해 「가곡의 밤」을 국내정서 속에 재현하여 대학축제분연 참여로 대학축제를 장식하려던 국어교육학회 (회장 李熙昇) 의 주최로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 반부터 2시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문리대 강당에서 열린 「가곡의 밤」은 그 예술적 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과 앵콜사태 (?) 속에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말, 글, 얼심는 敎育求道

知·情·意의 종합 지도법 중요

<사범대교수>

김 성 배

국어교육학

<27>

한국교육의 중심제는 국어를 매개로해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이다。각교과교육의 핵심체역시 국어를 통해서 영위되는 국어과와 관련된다。그런므로 국어교육 또는 국어교육학은 학문의 바탕이 된다고 할수있다。

한국의 국어교육은 고조선시대 (古朝鮮時代) 로부터 비롯되고, 신라·고려·이조·일제시대·조국광복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영위되어 민족문화를 발전, 풍성시켜왔다。그러나 체계적인 국어교육과 민족적인 국어교육은 국어교육만은 국어교육이다。국어교육을 역시 광복후부터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한글) 을 창제 반포하기까지는 우리민족자체의 훌륭한 음성언어 (音聲言語)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자언어(文字言語) 를 가지지 못했다。그래서 어떤고도 발달한 한문자 (漢文字) 를 그대로 쓰거나, 그것과 소리를 빌려 〈借字〉 이두문자 (吏讀文字) 를 만들어 써왔다。거기의 사상과 감정 또는 뜻을 펴냄에 있어 매우 구차하고 불편하며, 부자유스러움을 감수해야 했다。그것도 일부 특수계층, 소위 귀족적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나 양반계급에서나 벗어고 썼다。일반언중 (一般言衆) 에서는 배우지도, 쓰지도 못하였다。이 경우를 우리는 매우 비정상적인 국어교육이라고 규정할수 있다。

우리말, 글, 얼심는 敎育求道

知·情·意의 종합 지도법 중요

민족의 번영이나 국가의 발전 또는 문화의 융성은 교육의 힘을 기반으로 한다。한국교육의 발전은 각급학교의 교육이 잘되고 정상화된 것을 뜻하며 학교교육이 잘 되였다는 것은 각 교과목의 교육이 잘 되였다는 증거이다。

세종의 언문일치 교육의 원대한 안목과 민족문화 발전을 꾀하려는 높은 뜻은 그대로 전승되지 못했다。일부 국문자 사용의 반대파로 말미암아 환골을 대종화·민중화의 길이 지연된 것이다。한문자 투성이의 절름발이 국어교육에 대한 자각은 갑오경장 (甲午更張) 이후 한때 햇빛을 보는듯 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36년간 우리글은 물론, 말과 문화의 말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조국광복은 비로소 우리의 말과 글을 되찾아 정당한 국어생활을 하게된 하나의 전기이다。국어에 대한 민족적인 열망은 「국어교육학」의 정립을 촉발한 것이 된다。

민족의 번영이나 국가의 발전 또는 문화의 융성은 교육의 힘을 기반으로 한다。한국교육의 발전은 각급학교의 교육이 잘되고 정상화된 것을 뜻하며 학교교육이 잘 되였다는 것은 각 교과목의 교육이 잘 되였다는 증거이다。

이에 대해 M과의 L상급 정학가들이 출연해 「가곡의 밤」을 국내정서 속에 재현하여 대학축제분연 참여로 대학축제를 장식하려던 국어교육학회 (회장 李熙昇) 의 주최로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 반부터 2시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문리대 강당에서 열린 「가곡의 밤」은 그 예술적 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과 앵콜사태 (?) 속에 성황을 이루었다。

회전무대

○…8일부터시작된 「東國祝典」은 오히려 축제라기보다는 축제를 기피하는 축제(?)가 돌아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어린이 날」부터 불란해야할 것」이라고 반한달까지 약 10여일간의 축제당학 (?) 을 이용, 지방출신 학생들을 고향으로 떠나가 하면 텅 빈 술집 떠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을 규합, 단체여행을 떠나는등 축제에서 「축제선언」「가곡의 밤」「동국인의 향연」등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 가곡의 대중화를 기하려던 주인일은 축제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M과의 L상급 정학가들이 출연해 「가곡의 밤」을 국내정서 속에 재현하여 대학축제분연 참여로 대학축제를 장식하려던 국어교육학회 (회장 李熙昇) 의 주최로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 반부터 2시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문리대 강당에서 열린 「가곡의 밤」은 그 예술적 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과 앵콜사태 (?) 속에 성황을 이루었다。

○……늘어나는 祝祭절새(?)

司會者言動이 그래서야

……○

○…동국축전의 개막을 렬렬장 넘길수 있겠느냐 실질적인 지도 (德的面) 보다 형식적인 지도 (德的面) 에 치우쳐 있다」고 자탄하면서 또 주최자측에서도 학생 한 주최자측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있는 행사를 마련, 개량적으로 입법 시키기로 약속 하였거니와 결국 국어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중요성과 국어교육자로서의 중대한 사명감을 자각전지 (自覺奮起) 하여야 한다。그것은 바로 교육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서 성황을 이루었다는 「동국인의 향연」을 그야말까。

○…「知性과 낭만의 제전」이란 미명 (?) 아래 기에 특별한 노력과 정진 (精進) 이 필요하다。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글과 얼을 뿌리깊이 심어주는 교육구도 (敎育求道) 의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發祝展

開校 72周年

등대부속중학교 교장 김 관 섭
등대부속고등학교 교장 심 태 진

명성여자중학교 교장이 광 재
명성여자고등학교 교장박 원 일

은석국민학교 교장박 재 규
불국사석굴암 주지월 보 국

대한불교 조계종 칠 불 주지월 국 사
대한불교 조계종 봉 은 사 주지석 주 사
대한불교 조계종 대 도 선 사 주지혜 성 사
대한불교 조계종 진 관 사 대중일보 등 사

(祝) 發展 開校 72周年 동대문상가아파트 사장 구 영 학

(祝) 發展 開校 72周年 국내 최고의 국제 관광호텔 객실 540 및 국제급 각종 연회장및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외화 획득에 매진하는 국제 관광 호텔 입니다. 태평개발(주) 서울프라자호텔 대표이사 권 혁 중

(祝) 發展 開校 72周年 한국 공업 규격 표시 허가 공장 ★콘크리트 전주 ★콘크리트 흄관 ★콘크리트 파일 아주산업(주) 아주파이프공업(주) 대표이사 문 태 식

(祝) 發展 開校 72周年 국내 최고 최초의 화학합성 메이커 ☆에탄올(에칠알콜) ☆ACEPALDE EPHANOLHYD 한국에탄올(주) 대표이사 이 창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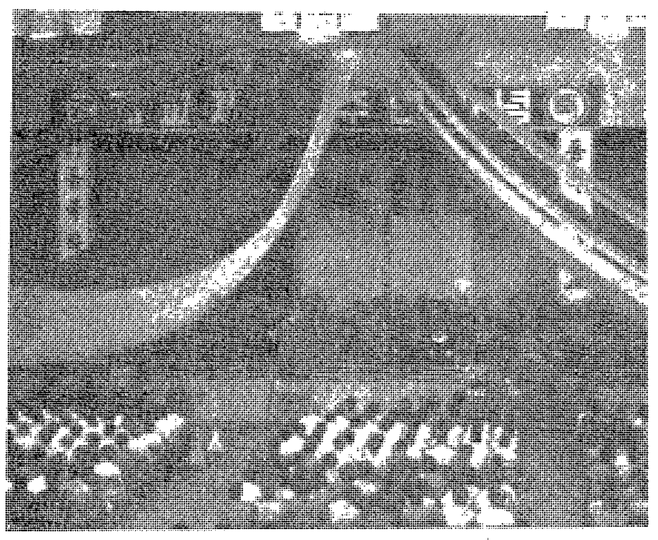
(祝) 發展 開校 72周年 토층기 전문 메이커 인체에 해로운 각종 해충(벌레)을 간단히 처리할수 있는 국내 최초의 특허품인 토층기 제조 회사입니다. (주)인창실업 대표이사 조 정 해 중구다동71(대동B/D1층) ☎4421·4100

(祝) 發展 開校 72周年 국민 보건과 체력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 최고의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제약회사 입니다. 서울약품공업(주) 전무이사 권 영 필

(祝) 發展 開校 72周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국내및 해외 주택 건설에 매진하여 외화 획득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주택 건설 회사 입니다. (주)한양주택 상무이사 정연화

建學理念 받들어 前進 다짐

8日, 開校 72周年 紀念式 盛況



◇새역사의창조를 다짐하는 開校72周年紀念式이 8日 체육관에서 열렸다.

大學의 特性提高에 總力

動績·動務敎職員 22명 表彰

1906년 明進學校를 설립한 이래 72個 星霜을 民族私學의 搖籃으로 성장 해온 本校는 지난 8일로 開校 72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전10시 본교 體育館에서 뜻깊은 게교기념식을갖고, 東大中興의 결의를 굳건히 다졌다. 尹月下이사장, 李瑄根총장, 趙明基(5代)·金東益(6代) 博士등 崔圭夏九동창회장, 駐韓 中國大使등 內外貴賓과 同門, 在學生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三師依醴로 시작하여 學校 沿革보고, 장기근속·근무자포창, 名譽博士學位수여, 總長기념사, 理事長 告辭의 順으로 진행, 四弘誓願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李瑄根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日帝下의 민족적 시련기에 2번의 開校를 맞이하는등 탄압속에서도 本校가 民族의 大學으로서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른것은 建學理念인 불교사상의 호국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前提하고 또 『고 尹月下理事長은 宗敎界의 원로로서 불교학술회의 개최, 正覺社會福祉會의 설립, 佛敎大學의 종합대학승격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이러한 佛敎의 발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新羅의 古都 慶州에 제2캠퍼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尹月下理事長은 告辭에서 『人類良心의 보루인 大學은 眞理탐구로 人類社會發展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建學理念인 佛敎의 가르침을 體得하고 실천하는 東國人이 되자』고 강조했다.

또한 崔圭夏九동창회장은 祝辭를 통해 『財團과 母校, 동창회가 일치단결하여 東國中興에 이바지 하자』고 말했다.

한편 李총장은 唐振楚(중화민국 총통부 부비서장)씨와 趙容珏(동덕여대 법학박사)씨에게 각각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또한 이날 式典에서는 鄭璡(佛敎大) 교수등 22명에 대한 창작과 공로패 수여식도있었으며, 校歌제창과 四弘誓願을 끝으로 식을 모두마쳤다.

이날 표창장과 공로패를 받은 장기근속·근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년 근속
▲鄭璡(佛大) 교수 ▲李東林(文理大) 교수 ▲朴冠鎬(文理大) 교수 ▲趙炳昊(工大) 교수 ▲權錫東(ㄱ) 교수 ▲金周弘(ㄱ) 교수 ▲尹柱憲(ㄴ) 교수 ▲李義範(佛大) 부교수 ▲趙旺基(경상대) 조교수 ▲李珉雯(工大) 부교수 ▲鄭址鎬(師大) 부교수 ▲崔德熙(ㄴ) 조교수 ▲趙炳炯(農大) 조교수 ▲趙在浩(ㄱ) 조교수 ▲張明根(교양학부) 14명 ▲李寧永(佛大) 교수 ▲이해룡(農大) 부교수 ▲金鎭敏(文理大) 부교수 ▲曺永祿(法政大) 부교수 ▲金光震(ㄴ) 조교수 ▲趙炳寅(農大) 조교수 ▲朴冠鎬(文理大) 조교수 ▲이상 3명

◇10년 근무
▲李寧永(佛大) 교수 ▲이해룡(農大) 부교수 ▲金鎭敏(文理大) 부교수 ▲曺永祿(法政大) 부교수 ▲金光震(ㄴ) 조교수 ▲이상 5명

◇15년 근무
▲李東林(文理大) 교수 ▲朴冠鎬(文理大) 교수 ▲이상 3명

◇20년 근속
▲權錫東(ㄱ) 교수 ▲金周弘(ㄱ) 교수 ▲趙炳昊(工大) 교수 ▲趙容珏(동덕여대) 교수 ▲鄭璡(佛大) 교수 ▲李東林(文理大) 교수 ▲朴冠鎬(文理大) 교수 ▲이상 3명

◇15년 근속
▲趙在浩(ㄱ) 조교수 ▲張明根(교양학부) 14명 ▲이상

◇10년 근무
▲李寧永(佛大) 교수 ▲이해룡(農大) 부교수 ▲金鎭敏(文理大) 부교수 ▲曺永祿(法政大) 부교수 ▲金光震(ㄴ) 조교수 ▲趙炳寅(農大) 조교수 ▲이상 5명

◇5년 근무
▲趙容珏(동덕여대) 교수 ▲鄭璡(佛大) 교수 ▲李東林(文理大) 교수 ▲朴冠鎬(文理大) 교수 ▲趙炳昊(工大) 교수 ▲權錫東(ㄱ) 교수 ▲金周弘(ㄱ) 교수 ▲尹柱憲(ㄴ) 교수 ▲李義範(佛大) 부교수 ▲趙旺基(경상대) 조교수 ▲李珉雯(工大) 부교수 ▲鄭址鎬(師大) 부교수 ▲崔德熙(ㄴ) 조교수 ▲金鎭敏(文理大) 부교수 ▲曺永祿(法政大) 부교수 ▲金光震(ㄴ) 조교수 ▲趙炳寅(農大) 조교수 ▲朴冠鎬(文理大) 조교수 ▲趙在浩(ㄱ) 조교수 ▲張明根(교양학부) 14명 ▲이상 22명

唐振楚·趙容珏氏에 名博授與

開校紀念式場서

◇唐振楚명박

◇趙容珏명박

開校 72周年을 맞은 本校는 지난 8日 開校紀念式을 갖고 鄭琫·李東林교수 등 22명의 근속·근무자를 표창하는 한편 唐振楚(中華民國의 敎育·行政發展과 韓·中學術交流에 기여한 공로로 趙容珏氏는 48年以來 女性敎育과 女性地位 향상에 헌신하는 등 각각 名博學位를 받게 된것이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李瑄根總長은 『개교 72주년을 맞이하여 두분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된것은 本校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共通的인 文化基礎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양문화의 전통계승과 女性敎育과 女性地位 향상에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唐振楚 名博은 본 學位를 經濟學博士學位를 각각 수여했다.

唐振楚氏는 1960년이래 교육계에 투신,

祝祭

홍겨운 탈춤의 흥취에 젖어

얼쑤얼쑤 어깨춤으로
돌아다니며, 우리
의 친구들을 맨
몸으로 사랑해야지

李明馥 隨筆

기다림과 흥분과함께 축제는 천둥 다가왔고, 오월의 하늘로 팔딱이는 물방울들이 어쩌면 그 혼한 아카시아일 수도 있겠고, 그냥 서해의 누런물이라도 괜찮아. 아무것이 어떻든 그 향기와 함께 교정에 가득 넘쳐 흐르는 젊음의 물이 우리가 아니어도 좋지, 그냥 서해의 누런물이라도 괜찮아. 아무것이 어떻든 그 향기와 함께 교정에 가득 넘쳐 흐르는 젊음의 물이 우리가 아니어도 좋지, 그냥 서해의 누런물이라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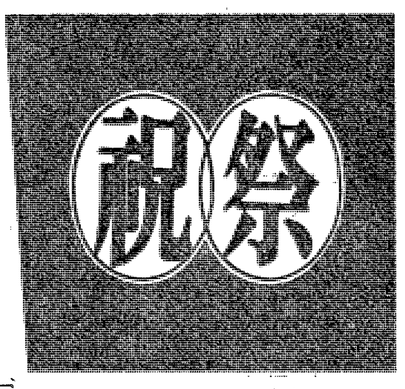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속삭거리는 이야기소리와 함께 젊음이 5월의 뿌리기 속에 만발할 수있으면 좋겠다. 즐겨 강렬한 음악과 열띤 청동으로 이 東岳路 언덕이 울려퍼졌으면좋겠다。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날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사육제의 광기도없고 학술제미나에서의 진지함도 없는 5월은 플랑카드의 물결을 타고 밑으로 밑으로 내려 떨어지고, 우리들의 혈림한 옷차림이 드센 남산바람에 펄럭거릴때 뭔가 강렬한 몸짓들을, 허공으로 쳐든 손, 손들。

우리는 진지함과 젊은열정의 꿍동묘지에서 떠나온 성묘객처럼, 고개돌 떨구고 5월을 지낼순 없는 일이지。한번쯤 그들사은의 격한 리듬에 파묻혀, 흥겨운 탈춤의 취흥에 젖어 얼싸 얼싸 어깨춤으로 돌아다니며 오월을 우리의말로 만들어야 하지。부덤을 과헤쳐야지。그리고 세종로의 갑갑한 차량의 행렬을 심각하게 내려다보고있는 성웅 이순신, 누군가 차라리 「구리 이순신」이라 이를 불러볼까, 갑갑함을 심각히 바라볼까, 이순신장군 동상을 아예 우리의 가슴속에 옮겨다 놓고 떠연을 벗겨내고, 갑옷을 벗겨내 우리그의 심각함을 간직해야지。

분수 하늘로 솟아오르고 청상 꽉대기 휘구름 걸려 있는데, 우리 가슴에 걸려 있는 플랑카드들, 그 거칠은 벽바탕으로 우리의 아 린 상처 핥으며 밑으로 밑으로 불려내려가고, 도저히 우리는 갈 수 없는, 가면 안될 곳까지 불려내려가 철벽같은 보바리의 책과 하늘 만들의 아우성을 잃어버리고 하고 날카롭게 소리불러야 손까지 목멜미까지, 아니아리들의 날이 퍼전같을 환서 그냥 하늘까지 떠올랐으면 해보지。

<法政大 法學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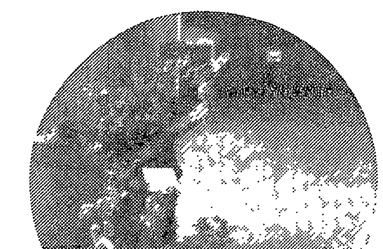
李明馥 隨筆

「釋林趣味展」

제1회 「釋林趣味展」이 지난 8월부터 麥生복지회관 2층에서 열려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釋林會(회장=黃日面·僧伽4) 주최로 열려오는 12일까지 5일간 전시되는 이 趣味展에는 鏡峯, 月下(본교 이사장) 스님과 李瑄根총장 등의 찬조작품 15점과 會員作品서예·회화·墨竹이등 총 63점이 전시되고 있다。여기에 출품된 회원들의 작품은 僧侶들이 學生活을 하는 가운데 틈틈히 익힌 솜씨로 제작한 것인데, 8일 이 전시회장에 들른 裵吉基(美術社) 교수는 『다소 미숙한 점도 보이긴 하나 극히 우수한 작품도 많아 훌륭하다』고 評했다。

釋林會 회원인 李再鎭(僧伽3) 스님은 『단조롭고 딱딱한 불교계에 리듬과 윤기를 줄 수 있는 전시회가 됐으며 계속 가지고있는 회원들의 작품도 천보이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사진은 꽃꽂이「염상희상」(비구니스님일동) (上) 과 8曲병풍「법성게」(釋普行·僧伽4), (中), 그리고 서예「나옹대화상발원문」(吳一衍·僧伽3) (下)

총 63點展示… "수준작많다"는 評

廣場에 핀 꽃들

박 진 관

山巍의 깊은 精氣 한 몸으로 물고와서
廣野의 틈 深山에 자리를 접고 앉아
긴날 긴 年輪을 가슴으로 곱고 곱어
여기 合掌하고 生命들을 지키는 이
어디선가 이상하게 고요를 물고와
밤 깊은 銀座의 微笑를 주시는 마음같이
저기 저 곱게 접어 불밝힌 心願의 心燈을 들고
어두운 이 마음에 聖座의 웃음 밭을 불태워
永遠히 永遠히 밝은 光明을 밝혀 주시는 오늘밤。

이 生命 다 하도록 불러보는 魂들이여
오만된 者들 밤 속에 여움을 불태워도
이 廣場은 언제나 心願의 生命들이, 춤추며
노래를 부르리라。

보아라 모두들 손을 모으고 보아라
보아라 모두들 손을 모으고 보아라
兜率天宮에서 내려오는 佛菩薩을 보아라。
이 廣場에 뭔 꽃들을 위하여
勇猛精進의 힘을 내려 주시는 佛菩薩。
어두운 이 세상 生命들은 모두들 눈뜨고
不生不滅하는 眞面目을 밝히고져
이 廣場에 모여 우리 님의 說法을 듣는다。

<詩人·佛敎大 僧伽科>

退任記者의 自戒의 時節

「新聞社와서 웃지못하고」

「메아리」를 타고 메아리가 되어

꿈 속까지 活字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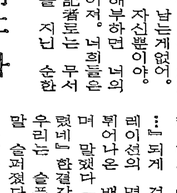
참 많이 웃었다。신문사와 책 어울리는 地下室에서 습기있는 음침한 옷을 널리고, 옷을에 쥐해 흔들거리고, 짝짝좋손벽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덩실덩실 춤도 추었다。全羅道 新泰仁에서 내가 들고온 사투리와 그 사투리에 섞 어울리는 바보스런 서울생활이 웃음으로 풀어졌는데…。난, 난 매끄러운 都市人이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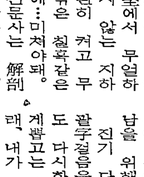
늦은 新聞社의 오후。 땀을 찬바람이 휘휘두가 되는 겨울 오후에 나혼자 남아서 형 빈 신문사를 불러볼 때 난 나는놀로, 「출근」「퇴근」이란 말과 너무나 친해진 나를 뭔히 소리치며 와 신문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학생회관 1층 학장실에서 만난 林友와 林소식과 안부를묻며 소주를 들어붓으면서 지나간 일주일을 헤아리는 新聞社 체질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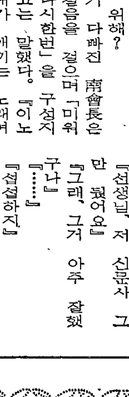
이귀한 地下室에서 컴컴한 너?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서 분분히 켜고 무엇하니? 밖은 청옥같은 어두운 밤에…미쳐야돼。신문사는 解剖해선 안돼。남는건 네 자신뿐이야。신문사를 해부하면 너의 신문이 없어져。너희들은 記者, 學生記者로는 무서운 共通點을 지닌 순한 양들이야。

□新聞社가 족이 좋아

南 新聞社 新聞社







退任記者의 自戒의 時節 「新聞社와서 웃지못하고」

□꿈 속까지 活字化

참 많이 웃었다。신문사와 책 어울리는 地下室에서 습기있는 음침한 옷을을 널리고, 옷을에쥐해 흔들거리고, 짝짝좋손벽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덩실덩실 춤도 추었다。全羅道 新泰仁에서내가 들고온 사투리와 그 사투리에 섞 어울리는바보스런 서울생활이 웃음으로 풀어졌는데…。난, 난 매끄러운 都市人이되었는가?

늦은 新聞社의 오후。 땀을 찬바람이 휘휘두가 되는 겨울 오후에 나혼자 남아서 형 빈 신문사를 불러볼 때 난 나는놀로, 「출근」「퇴근」이란 말과 너무나 친해진 나를 뭔히 소리치며 와 신문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학생회관 1층 학장실에서 만난 林友와 林소식과 안부를묻며 소주를 들어붓으면서 지나간 일주일을 헤아리는 新聞社 체질같아。

이귀한 地下室에서 컴컴한 너?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서 분분히 켜고 무엇하니? 밖은 청옥같은 어두운 밤에…미쳐야돼。신문사는 解剖해선 안돼。남는건 네 자신뿐이야。신문사를 해부하면 너의 신문이 없어져。너희들은 記者, 學生記者로는 무서운 共通點을 지닌 순한 양들이야。

□新聞社가 족이 좋아

南 新聞社 新聞社

□만남이 곧 成長

어느날 시집간 옛짝을 보고 난 갑자기 어른이 되었다。코흘리던 그녀가 아기 엄마가 되어, 이젠 어른스러워진 그만큼 그 날 저녁 나에게도 발견된 것이다。정말 사람은 만나는 것이 성장인 줄 모른다。

내가 처음 「地下室」에서 선배를 만났을때 그는 기술이 나보다 나았고, 그전 사람은 그보다 나았고, 또 그전 사람도 그랬다。

결국 난 그전 사람보다 부족하기만 했던 것 같다。

□新聞나온걸 □「2」字의悲劇

더 비극적인 일은 내가 가들어와 인물사진의 주인공이 남겨어 두번씩이나 인쇄, 그것도 후배기자에게 다 가르치지도 못한 채인데, 내 뒤사람을 나 이상 보고 나서야 어떤 기분이 나 생각 나다 배웠다고말하고 싶다。

사진이 찡그나면 구중가들어와 인물사진의 주인공이 남겨어 두번씩이나 인쇄, 그것도 후배기자에게 다。

□新聞나온걸로 위안

사진이 찡그나면 구중서 선배를 만났을때 그는 기술이 나보다 나았고, 그전 사람은 그보다 나았고, 또 그전 사람도 그랬다。

결국 난 그전 사람보다 부족하기만 했던 것 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 나다 배웠다고말하고 싶다。

□讀者여, 미안하다

오랫동안 못난 사진을 아무소리않고 보아준 독자에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바 차후라도나를알아보시면 구중주시길 바라고, 어려운 부탁을 해도 참아하지 않는 주간 안을 할까보다。

□「2」字의悲劇

더 비극적인 일은 내가 가들어와 인물사진의 주인공이 남겨어 두번씩이나 인쇄, 그것도 후배기자에게 다 가르치지도 못한 채인데, 내 뒤사람을 나 이상 보고 나서야 어떤 기분이 나 생각 나다 배웠다고말하고 싶다。

□新聞나온걸로 위안

사진이 찡그나면 구중서 선배를 만났을때 그는 기술이 나보다 나았고, 그전 사람은 그보다 나았고, 또 그전 사람도 그랬다。

결국 난 그전 사람보다 부족하기만 했던 것 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 나다 배웠다고말하고 싶다。

□讀者여, 미안하다

오랫동안 못난 사진을 아무소리않고 보아준 독자에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바 차후라도나를알아보시면 구중주시길 바라고, 어려운 부탁을 해도 참아하지 않는 주간

崔吉東 <本社前寫眞部長·統計4>

書類구비후 承認받아

「殉敎者……」主管·豫算이 문제

「殉敎者 異次頓」不許를 계기로 본 學生活動 그 承認절차

각 써클의 學生活動이 다고해도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이번 초국단 宗敎部의 「殉敎者 異次頓」 공연의 「不許를 계기로 각 서어클의 행사절차, 신규서어클의 동북에 관한 절차를 學生指導課를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학교하고 있으며, 행사를 한 각 써클의 學生活動이 그 승인절차의 미비사항이나 소관업무의 합계를 알선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해하지 못하는 승인되지못하는 사이 유로 종종 있다。최근宗敎部(부장=李奎憲·印哲4)가 공연하려던 연극 「殉敎者 異次頓」(原作=李光洙, 演出=高鍾寬·印哲4)의 경우가 그러

◇不許된 「순교자 異次頓」의 리허설 장면。

표적인 예이다。

현재 本校에는 총40개의 서어클이 존재하고있는데 학도호국단이 1975년 6월25일 결성되면서 總學生會는 폐지되어 일부에서는 학생활동이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생기고 있다。

물론 그말이 근거있는 이야기이긴하나 일부 서어클에서는 활동이 가능한 행사도 행사승인절차를 몰라 활동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신규서어클의 등록허가 원칙은 理念이 확실한同好人 득수 취미동을 지니 모임으로 구성원이 20인 이상이며 지도교수가 있어야하고 헌존 서어클과 유사한 성격이 아닌 단체여야 한다。

각 학생단체및 서어클이 행사를 하려면 여러가지의 서류절차가 필요하다。

행사의 승인원칙은 모든 對外行事에는 지도교수가 참석해야하며 소요예산, 준비등에 부리가 없는한 승인이 가능하다。

행사의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행사집회허가원(지도교수의 날인)을 학생처에 제출해야 하며 삼년동안 사진기자이나 급사로서 시작해고급 급사로 그만둡이나마 지나가 구닥다리 확대기와 습판 앞에서 이력을 연마한다니 우선 기쁘다(?)。

그러나 宗敎部의 「殉敎者 異次頓」와의 公演承認 不許는 위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생긴 결과라고 學生指導課에서 말한다。

또한 계시물은 학도호국단에서 배부(3매이내)하고있으며 계시전에 학생지도교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행사후에는 행사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의 날인을받아 학생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82條에 의하면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여 ①團體 및 個人의 名稱 ②目的 ③開催日時, 場所 및 參加豫定人員에 대하여 ④指導·育成하는 校內敎官, 인솔자의 選定 ⑤外部人士의 招請 ⑥총장의 교섭 ⑦기타 총장이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번 宗敎部의 「殉敎者 異次頓」와의 不許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생긴 결과라고 學生指導課에서 말한다。

그러나 宗敎部의 李奎憲(印哲·4) 부장은 행사승인의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은 것은 學生活動을 指導·育成하는 입장에서 승인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宗敎敎育部에서는 이번 공연의 「不許」이유를 主管문제, 예산문제, 절차문제 등이 미비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宗敎敎育部에서는 이번 행사의 主管을 반해 종교부에서 하고 있으며 현 학도호국단체에는 그러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현 학도호국단체에서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宗敎敎育部에서는 이번 행사의 主管을 반해 종교부에서 하고 있으며 현 학도호국단체에는 그러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현 학도호국단체에서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宗敎敎育部에서는 이번 행사의 主管을 반해 종교부에서 하고 있으며 현 학도호국단체에는 그러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현 학도호국단체에서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農心라면

●맛이 뛰어납니다.
맛 신선한 야채와 많은 쇠고기의 사용으로 스프의 맛이 구수하며 영양가도 매우 높습니다.

●최고급 식용유를 사용합니다.
식용유 외국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식용유만을 사용, 최신자동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위생적입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읍니다.
소화 이상적인 배합과 FRY(튀김) 처리로 α(알파) 화도가 높아 소화흡수력이 좋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읍니다.

農心 株式会社 農心